

안녕하십니까? 미한국상공회의소(KOCHAM) 사무국입니다.

아래 경제 기사와 보고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(기사 아래 파란색 버튼을 누르시면 기사 원문을 보실 수 있습니다)

[미국 경제]

- Bloomberg: 1월 의사록, “너무 빠른 금리 인하 위험”
- Bloomberg: 미 신규 주간 실업수당, 한달만에 최저치

[미국 금융]

- WSJ: 나스닥 시장 상승... 엔비디아 수익이 주도

[주택]

- WSJ: 하락했던 미 기존 주택 판매, 1월에 반등 한 듯

[에너지]

- Bloomberg: 유가, 박스권 고점에서 안정세 유지

[물류]

- NYT: 올해 추가되는 컨테이너선, 해상 운송비 낮춘다
- WSJ: 월마트, 공급업체의 배송 기준 완화하다

[비즈니스와 기업동향]

- CNBC: 미 소기업주 경제 신뢰도, 바이든 취임 후 최고치
- WSJ: 오늘 목요일, AT&T 통신 서비스 장애 발생하다
- TechCrunch: 삼성, “갤럭시 AI 기능, 다른 핸드폰 기종에서도 이용 가능할 것”

[보고서]

- 신한은행 아메리카: 일일 금융 시장정보

[미국 경제]

Bloomberg: Fed Minutes Show Most Officials Flagged Risks of Cutting Rates Too Quickly

1월 의사록, “너무 빠른 금리 인하 위험”

- 어제 수요일 발표된 1월말 연준 의사록에 따르면 연준 관리들은 높은 금리를 유지해 경제에 타격을 가하는 것보다 오히려 너무 빨리 금리를 인하하는 것이 우려된다는 입장이었다.
- 이들은 금리가 당초 목표치인 2% 쪽으로 인플레이가 둔화되는 증거들을 더 찾기 원하는 입장이었다. 이와 관련 연준 관리들은 차입 비용을 가까운 장래에 계속 높게 유지할 것이라는 입장을 보였다.

Bloomberg 기사

Bloomberg: US Jobless Claims Decline to the Lowest Level in a Month **미 신규 주간 실업수당, 한달만에 최저치**

- 지난주 미 실업청구 건수가 한달만에 최저치로 떨어졌다. 최근 대기업의 대규모 감원에도 불구하고 노동시장이 여전히 견조한 상황이라는 것.
- 2월 17일 끝나는 주의 신규 실업청구 건수가 1만2천건 줄어든 20만1천건으로 나타났다. 현대 실업수당을 받고 있는 전체 숫자는 1백 86만명으로 나타났다.

Bloomberg 기사

[미국 금융]

WSJ: Stock Market Today: Nvidia Earnings Electrify Markets 나스닥 시장 상승... 엔비디아 수익이 주도

- 엔비디아의 주가가 사상 최고치를 구사하면서 S&P 500 지수가 최고치를 향해 나아가고 글로벌 증시에 활력을 불어일으키고 있다.
- AI의 수요가 치솟으면서 분기 실적이 발표된 엔비디아 주가가 개장 직후부터 11%나 상승중이다. 이에 따라 나스닥 종합지수는 2% 이상 올랐다.
- 엔비디아의 호조로 일본 니케이 증시도 상승했으며 한국, 대만 그리고 중국의 칩 제조 관련 주가도 동반 상승했다.

WSJ 기사

[주택]

WSJ: Home Sales Likely Rebounded in January After Last Year's Sharp Decline 하락했던 미 기존 주택 판매, 1월에 반등한 듯

- 기존 주택 판매가 작년의 경우 지난 30년간 가장 낮은 수치를 보였지만, 1월에 증가한 것으로 이코노미스트들은 말하고 있다.
- 이는 지난 가을 이래 모기지율이 감소한 탓도 있다는 것이다.
- 월스트리트의 이코노미스트들 대상 설문결과 기존 주택 판매가 지난해 12월에서 1월에 계절조정치로 4.8% 상승했다고 추정했다.

WSJ 기사

[에너지]

Bloomberg: Oil Holds Near Upper End of Range on Signs of Tighter Market

유가, 박스권 고점에서 안정세 유지

- 미 원유 비축량의 증가를 예상하는 보고서가 발표되기 앞서, 유가가 고점 부근에서 안정세를 보였다.
- 브렌트 유가가 배럴당 83불에 거래됐다. 미국석유학회(API)는 미 원유 비축량이 크게 증가했다고 보고한 바 있다.
- 타임 스프레드는 원유 시장이 앞으로 더 견조할 것임을 예고하고 있다.
- 원유는 최대 수입국인 중국의 수요 둔화 전망과 중동의 지정학적 리스크 증가, 홍해 지역의 리스크로 인해 박스권 상단 부분에서 거래되고 있다.

CNBC 기사

[물류]

NYT: New Freighters Could Ease Red Sea Cargo Disruptions 올해 추가되는 컨테이너선, 해상 운송비 낮춘다

- 작년 후티 반군이 컨테이너 선을 공격한 뒤로 아시아에서 출발한 해상 운송비가 300% 이상 상승했으며, 이는 공급망 붕괴 공포를 일으켰다.
- 그러나, 다행히도 세계는 이런 공급망 위기를 피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.
- 왜냐하면 2~3년 전에 주문했던 상당량의 컨테이너 선들이 운항을 시작할 예정이기 때문이다. 늘어난 컨테이너 선박수는 증가한 항로의 거리를 상쇄할 수 있다.
- 해상 운송비는 아직 높은 상태로 유지되고 있지만, 분석가들은 추가된 선박들로 인해 올해 말에는 운송비가 떨어질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.

NYT 기사

WSJ: Walmart Eases Supplier Delivery Demands as Stocking Pressures Recede

월마트, 공급업체의 배송 기준 완화하다

- 월마트가 공급업체의 정시 및 완전 배송(on-time and in-full shipments)에 대한 기준을 완화할 예정이다.
- 월마트가 약속된 90%의 시간 내에, 95%의 완전한 배송을 공급업체가 이행하도록 기준을 낮춘 것이다. 이는 2020년에 설정된 98% 기준보다 완화됐다.
- 이런 변화는 물류 네트워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. 또한 팬데믹 기간 동안 급격한 재고 변화를 겪었던 월마트가 정상적인 주문 운영으로 복귀하면서, 공급업체는 그동안의 부담을 덜게 되었다.

WSJ 기사

[비즈니스와 기업동향]**CNBC: Economic confidence among small business owners hits highest level since Biden took office****미 소기업주 경제 신뢰도, 바이든 취임 후 최고치**

- CNBC 미 소기업 신뢰지수(CNBC|SurveyMonkey Small Business Confidence Index)가 바이든 대통령이 2021년 취임한 이래 최고치를 기록했다.
- 전체 설문 대상자인 소기업주 중에 28%는 경제 상황이 아주 좋거나 좋다고 답했다. 이는 지난 분기의 조사보다 5% 상승한 수치다.
- 이들은 여전히 인플레이션이 계속되고 있다는 우려를 보이고 있으며 바이든에 대한 지지율은 여전히 낮게 나타났다.

CNBC 기사

WSJ: Thousands of AT&T Customers Lose Cell Service**오늘 목요일, AT&T 통신 서비스 장애 발생하다**

- 오늘 목요일 오전에 미국 전역의 AT&T 이용자들이 통신 장애를 겪었다.
- 8시 30분경에 약 7만5천 건의 통신 서비스 장애 신고가 접수된 것이다.
- 이번 서비스 장애는 애틀랜타, 댈러스, 휴스턴, 뉴올리언스, 오클라호마시티, 노스캐롤라이나 주 랄리 등 대도시 지역에서 집중적으로 발생했다.

WSJ 기사

TechCrunch: Samsung is bringing Galaxy AI features to more devices**삼성, “갤럭시 AI 기능, 다른 핸드폰 기종에서도 이용 가능할 것”**

- 삼성이 오늘 3월 말에 있을 One UI 6.1 업데이트를 통해 갤럭시 AI의 기능을 더 많은 기종에 적용할 것이라 말했다.
- 언급된 기종은 갤럭시 S23 시리즈, S23 FE, Z Fold5, Z Flip5, Tab S9 울트라, Tab S9+, Tab S9이다.
- 업데이트를 통해 사용자들은 메시지의 어감을 조정하고, 13개 언어로 텍스트를 번역할 수 있는 '채팅 지원(Chat Assist)' 기능을 이용할 수 있다. 또한 메모를 번역 및 요약하거나 기사를 요약하는 기능도 사용할 수 있다.

TechCrunch 기사

[보고서]

신한은행 아메리카: 일일금융시장정보 (Shinhan Society Daily Letter)**美 연준인사들, 내달 양적긴축 속도조절 '심층 논의' 의사****1월 FOMC 의사록 공개... "양적 긴축 종료 임박은 아냐" 관측**

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(Fed·연준) 인사들이 지난달 연방공개시장위원회(FOMC) 회의 당시 다음 달 양적 긴축(QT) 속도 조절에 대한 심층 논의 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.

로이터통신은 21일(현지시간) 공개된 지난달 FOMC 회의 의사록을 근거로 다수 참석자가 다음 달 19~20일 FOMC 회의에서 어떻게 양적 긴축을 결론 낼지에 대해 심층 토론을 시작하고 싶다는 의사를 밝혔다고 보도했다.

그런 만큼 연준 내부적으로 다음 달 FOMC 회의에서 이에 대한 논의 속도가 빨라질 전망이지만, 양적 긴축 종료 시기에 대한 결정 등은 그보다 뒤로 미뤄질 것으로 보인다는 게 로이터 평가다.

... 위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

신한 일일금융시장정보 원문

KOCHAM | 460 Park Ave. Suite 410, New York, NY 10022

[Unsubscribe office@kocham.org](mailto:office@kocham.org)

[Constant Contact Data Notice](#)

Sent by office@kocham.ccsend.com